

동향과 전망

곽동훈 · 루마니아 한국학 동향
그 발전 방안의 모색

루마니아 한국학 동향*

: 그 발전 방안의 모색

곽 동 훈*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루마니아 내 한국학의 태동
- III. 루마니아 내 한국학 현황 및 발전과정
- IV. 루마니아 내 한국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과제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루마니아에서 한국학 교육의 시작은 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對루마니아 투자와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 이 논문은 2023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23-INC-2250001)

** 郭東勳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문학대 동양어문학부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한국문화센터장 dong.hun.kwak@ubbcluj.ro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279>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학, 특히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루마니아 내 한국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극히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즉 단순한 충동적 학구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루마니아 내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과 같은 문화콘텐츠의 영향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루마니아 한류 팬들의 수와 활동을 증가하게 한 것은 물론이며, 바베쉬-보여이 대학을 비롯한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어문학과’의 입지와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할 수 있다. 필자가 학위 공부의 막바지에 시간강의를 시작한 2010년만 하더라도 마지막 학년인 3학년 한국어문학 전공학생의 수가 5명이 채 안 되었지만 동년 10월, 30명 이상의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온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한류의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증대된 국가브랜드 가치와 대한민국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지강사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루마니아 내 한국학은 현재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어학습 수요가 루마니아 내에서도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질은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 외 한국의 역사나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대부분의 루마니아를 비롯한 해외 한국학교육자들(한국인을 제외한 이들)은 주로 다른 언어(영어 혹은 일본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 따라서 제3국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칫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힐 우려가 있다. 한국학의 시작을 일제 강점기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냉전시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심에 따라 미국에 의해 한국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사실은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²⁾ 따라서

1) 현재 해외에서 한국학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학에서 한국학으로 분야를 옮긴 학자들이다.

올바른 한국학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하고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교원 개개인의 연구업적에도 중요하지만, 학과는 물론 루마니아 내 한국학의 대의적 목표로서 인식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순수 언어학습에만 치중되어온 초기 교육방향은 현재 문학은 물론 역사, 번역, 북한학, 한국사회의 이해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으로까지 확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루마니아에서의 한국학은 도약단계를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발전단계에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한국학은 한국어교육과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한국학 연구도 꾸준히 시작할 때라 사료된다. 루마니아 내의 한국학 연구는 앞으로 지역학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융합학문인 지역학 연구의 틀에서 한국학을 기획하고 연구, 교육 그리고 결과를 창출해야만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한국학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러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이 당분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루마니아 측 대학기관들의 노력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룬 후 이에 맞게 적합한 하드웨어를 구비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강위운영 방식에 보다 새롭고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글의 주목표는 한국학 교육의 반듯한 학문적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이 요구되며 나아가 현재의 루마니아 내 한국학 현황을 조사하는

-
- 2) 일본은 그들의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한국학의 시초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광복 후에는 냉전시기를 거치며 북한학은 러시아에 의해, 한국학은 특히 미국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것이다. 루마니아 한국학 발전을 위해 새롭게 고찰하고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학 발전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루마니아 내 한국학의 태동

루마니아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부카레스트 대학교’와 ‘크라이오바 대학교’, ‘바베쉬-보여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과목 (curs facultativ), 즉 학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어도 중요성이 덜 한 강좌로 운영되어왔다. 이처럼 초기에는 정식 학과의 개념으로서가 아닌 어문계열 전공학생들 중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수준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90년대 중반에는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강사(해외봉사단 자격)들이 한국어교육의 중추역할을 하였으나 현지 대학기관 교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마찰과 갈등, 해외파견봉사단 특성 상 잦은 교환근무 등으로 인해 강좌의 질은 심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KOICA 파견강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특히 강의실 배정문제로 인해 학교관계자들과의 갈등이 심했으며 학점인정이 안 되는 관계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한다.

1995년경 크라이오바 대학 (Universitatea din Craiova)에는 KOICA의 지원으로 루마니아 내 첫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대학이 위치한 크라이오바市에는 당시 대우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였고 현지인들 사이에 한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하였다. 루마니아 제1의 국립대학인 바베쉬-보여이 대학 (Universitatea Babeş-Bolyai)에도 역시 KOICA의 지원으로 1997년 10월부터 문학대의 동양어문학부에서 한국어강좌가 운영되어왔으나 2002년, KOICA의 루마니아 철수로 인하여 두

곳 모두 한국어강좌가 폐강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루마니아의 수도에 위치한 부카레스트 대학 (Universitatea din București)에서는 1996년 KF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한충희 박사가 파견되어 외국어 선택과목으로서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다. 2005년까지 선택과목, 즉 제3외국어강좌(third language 혹은 language C라고도 불린다)로서 3개의 강좌 (기초, 중급, 고급과정)를 운영하다 2005년에 부전공학과 (제2외국어, language B)로 승격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동 대학출신의 황정남 박사와 당시 박사 과정에 있었던 Diana Yuksel이 학과운영을 맡게 되어 ‘한국어 실습’, ‘국어구조와 언어학’, ‘문화와 문명’, ‘국문학’과 같은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2005년부터 부카레스트 대학교가 한국어문학을 학부과정(undergraduate program)으로 처음 개설하였으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부전공학과로 남아있다.

현재 부카레스트 대학교 외에 학부과정으로 한국어문학을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클루즈-나포카 (Cluj-Napoca)’市에 위치하고 있는 바베쉬-보여이 대학교가 유일하다. 앞서 말했듯이 2002년 KOICA의 한국어 봉사단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이 대학 문학대 동양어문학부 내 모든 한국어강좌가 중단되게 된다. 그러나 2005년, KF의 강사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 박영숙이 파견되어, 한국어강좌가 재개설된 후 2008년, 루마니아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고 한국어문학과가 제1전공학과로 승격된다. 현재도 바베쉬-보여이 대학교만이 루마니아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문학을 전공학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KF의 꾸준한 학내문화 행사지원(전시물품, 한국문화·예술 소개 활동 지원, 각종 홍보책자 및 도서지원 등)과 당시 KF를 통해 파견된 박영숙 강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현지 학교관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학과 승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영숙 강사와 함께 강좌를 맡고 있던 Codruța Sintionean 박사의 적잖은 노력도 전공학과로 승격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박영숙 강사와 현지 학교관계자들 간에 자주 드러난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Sintionean 박사는 본래 루마니아어 전공에 일본

어문학 부전공자이지만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문화와 관련이 많은 주제를 다루었고,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약 1년간의 연수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학과의 책임교수이며, 대내외적으로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한 한국학 연구자로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동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필자가 학과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까지 ‘한국어 기초, 중급 문법’과 ‘북한 사회와 문화’, ‘미디어를 통한 한국사회의 이해’, ‘비즈니스 한국어’를 맡고 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와 관련된 몇 가지 대학원 강좌를 책임지고 있다. 2013년 한국어교육 전공자인 연구자, 김훈태 박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이곳에 파견되어 2019년 6월까지 ‘한국어교육’과 ‘한자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8년 홍혜련 박사가 KF 파견교수 자격으로 ‘한국어 기초와 중급’, 그리고 번역 강좌를 2024년 6월까지 맡게 된다. 또한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Alexandra Bija가 시간강사 자격으로 ‘한국어 기초와 중급과정을 위한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현재 2명의 현지인과 1명의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교육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내에서 유일한 ‘한국문화센터(Centrul Cultural Coreean)’가 2008년 전공학과로 승격되는 동시에 개설되었다. 현재 한국학 도서관 겸 한국어문학과와 전용 강의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베쉬-보여이대학교 문학대의 모든 학과는 각 학과의 규모와 역사에 맞춰 전용 강의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센터설립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바베쉬-보여이대의 문학대는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어 전용 강의공간이 없는 학과는 매 학기마다 강의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문화센터는 시내 중심, 대학 내 현대식 신축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학대 소속 학과 중 다른 건물 공간을 배정받아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전례는 이제까지 없다. 또한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접근성이 크다 하겠다. 이는 대학당국 내에서도 한국어문학과와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공운영과

유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해외 대학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학당국의 지원은 인적인 측면과 물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인적 지원은 주로 전공강좌에 투입될 교수진의 확보와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 그리고 출판지원 등을 언급할 수 있겠고, 물적 지원으로는 강의실 공간, 도서관 공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 한국문화센터라는 전용공간을 확보한 덕택에 매학기 2회 ‘한국음식 체험’이나 ‘한국영화 상영’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매학기 2회 한국문학 독후감대회와 한국문학 번역대회를 열어 한국문학 수요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학, 문화행사는 학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며 Facebook이나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매번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2010년도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자면, 바베쉬-보여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문학이 전공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2012년도까지 총 10명의 졸업 대상자 중 단 3명의 학생만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⁴⁾ 즉, 한국어문학이 2008년 전공으로 시작된 후 4년 동안은 졸업생이 30%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3학년 졸업예정자

3) 김훈태, 「동유럽 대학의 한국어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어문연구』 42(2), 2014, 26쪽

4) 바베쉬-보여이 대학 문학대의 경우, 학사졸업장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전공 혹은 부전공 주제와 관련된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제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10년을 즈음하여, 학사과정 3년과 석사과정 2년의 ‘블로냐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모든 수업을 3년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 내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시간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위에 언급한 시기는 블로냐 학제 도입의 과도기라 간주할 수 있겠다.

들을 대상으로 교·강사들이 직접 논문주제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논문주제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학위논문 작성에 있어서 첫 단추이자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강사들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각자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에 맞게 맞춤형 논문작성 지도를 하고 있다.⁶⁾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졸업논문의 제출이 늘고 있고 연구주제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루마니아 내에서는 대학기관 외에 여러 단체에서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⁷⁾ 이처럼 루마니아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과거, 졸업생의 수가 상당히 낮았던 이유는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였고 졸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였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도 매년 20-30%의 학생들이 학적을 수료상태로 학업을 마치고 있다. 전공학과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학학생의 수와 졸업생의 규모일 것이다. 졸업생의 수가 떨어지는 학과를 대학당국은 물론이고, 루마니아 교육부 내에서도 전공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은 당연하다. 이 점은 실제, 루마니아 교육부 정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의 비율과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6) Sîntionean 교수는 문학과 문화, 언어 분야와 관련된 논문작성을 지도하고 있고, 필자는 역사와 북한관련 주제, 한국사회와 관련된 것을 지도하고 있다.

7) 수도인 부카레스트를 중심으로 여러 선교단체들이 한국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몇몇 선교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선교차원에서 한국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카레스트에 위치한 '디미트리에 칸테미르 대학교 (Universitatea Dimitrie Cantemir)'가 2020년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어 교육은 물론, 루마니아 내 한국문화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II. 루마니아 내 한국학 현황 및 발전과정

루마니아 내에서 한국학 관련 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기관은 바베쉬-보여이 대학교⁸⁾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바베쉬-보여이 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 입학정원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전공 약 40명에 부전공 입학정원에는 제한이 없다. 루마니아의 대학기관 내 어문계열 학생들은 전공과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전공과 부전공의 이수학점이나 수업일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또한 바베쉬-보여이대학의 경우 한국어문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들이 지닌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지도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⁹⁾ 2015년경부터 한국어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에게서 이채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주로 동양어문학부 내에 중국어문학이나 일본어문학 전공자들이 한국어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다른 학부에 전공을 둔 학생들이 한국어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입학생의 경우 한국어문학 부전공자 전체 16명 중에 영어영문학 전공자가 9명, 중국어문학 2명, 일본어문학 3명, 불어불문학 1명 외에 노르웨이어문학 전공자도 1명이 등록을 하였다. 2016년의 경우, 영어영문학 전공학생이 11명, 중국어문학 4명, 일본어문학 3명과 이탈리아어문학 1명, 스페인어문학 1명과 러시아어문학 1명의 전공학생이 부전공으로 한국어문학을 선택하였다. 2021년에 입학했던 3학년 재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문학 부전공 전체 46명 중, 중국어

8) 루마니아의 대학도시, 클루즈-나포카 (Cluj-Napoca)시에 위치한 루마니아 최대 규모의 국립대학이다. 1581년에 클루즈-나포카에 설립된 대학, Colegiul iezuit din Cluj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21개 단과대학을 두고 있고 사무직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의 수는 약 4,800여 명, 재학생 수는 약 50,000여 명이다.

9) 한 예로, 제49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부전공학생(독일어문학 전공, 한국어문학 부전공)이 3학년 내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6급을 받았다.

문학 전공자가 10명, 영어영문학 12명, 이탈리아어문학 7명, 루마니아어문학 4명, 포르투갈어문학 3명, 불어불문학 2명, 러시아어문학 2명, 스페인어문학 2명, 핀란드어문학 3명, 독일어문학 1명이 등록을 하였다.¹⁰⁾ 이러한 사실은 한국학 교육에 대한 수요층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양 한국어수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¹¹⁾ 교양 선택수업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전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필자가 교양수업을 담당했던 초기에는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문학대 소속이었으나, 이후 상경대와 법대, 의대, 음대 등 수강생들의 전공이 보다 다양해진 사실은 한국학, 특히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매년 10월, 개강 시 교양 한국어수업의 등록지는 50여 명을 넘고 있으나 학기가 지날수록 수강생들의 수가 줄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매년 1학기 초, 교양한국어 수업의 등록자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도포기 역시 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류열풍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류가 한국어 학습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학습 성취도면에서는 아직 미흡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2022년부터 한국어문학을 제1전공으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만을 신입생으로 받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인 학과운영을 위해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겠다는 대학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문학 부전공자들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루마니아 교육기관의 특성상, 교육과정이나 정책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교양 한국어’ 강좌는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이 수강하는 경우, 한 학기당(14주) 약 300 LEI (한화로 약 10만원 상당)를 학교 내 수납창구에 수납한다. 이 금액은 학과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수납된 금액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 한국어 수업은 학과의 자체수익사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문학과가 속해 있는 동양어문학부의 책임교수는 일본어문학과와 학과장 (문학박사 Rodica Frentiu, 정교수급)이 맡고 있으며, 일본어문학 도서관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내 동양어문학부 3개학과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교수진

조교수급 이상: 한국어문학과 (2명), 일본어문학과 (4명), 중국어문학과 (1명)

전임 및 시간 강사: 한국어문학과 (1명), 일본어문학과 (1명), 중국어문학과 (2명)¹²⁾

(2) 등록학생 현황

박사과정: 해당사항 없음

석사과정: 20명¹³⁾

학부과정: 한국어문학과 (123명), 일본어문학과 (106명), 중국어문학과 (61명)

(3) 강좌 수

박사과정: 해당사항 없음

석사과정: 24개¹⁴⁾

12) 중국어문학과와 일부 강좌들은 ‘공자학원’과의 협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언급한 3명의 중국어문학과 교원은 바베쉬-보여이대학에 소속된 인원만을 의미한다.

13) 석사과정의 명칭은 ‘East Asian Studies and Research (동아시아 연구)’이며, 한국어문학과와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이다.

14) ‘동아시아 연구’의 대학원생은 출신학과에 따라 2년간 4개의 해당언어 수업을 비롯

학부과정¹⁵⁾: 한국어문학과 (18개), 일본어문학과 (30개), 중국어문학과 (18개)

교양선택¹⁶⁾: 한국어문학과 (4개), 일본어문학과 (4개), 중국어문학과 (4개)

(4) 보유 장서

한국어문학과: 약 2000여 권, 일본어문학과: 약 2000여 권, 중국어문학과: 약 10000여 권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교과과정(curriculum)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	학 년	기간	주당 수업 시간	취득 학점
기초 한국어	1	10월~1월 (1학기)	6시간	6학점
한국어 (문장 안의 기능)	1	3월~6월 (2학기)	6시간	6학점
한국문화와 문명 (단군에서 고려)	1	10월~1월 (1학기)	3시간	6학점
한국문화와 문명 (조선에서 현대)	1	3월 ~6월 (2학기)	3시간	6학점

해서 12개의 공통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15)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강좌들 중, 선택강좌 일부는 필수강좌와는 달리 때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교원 정원보다 실제 교원 수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6) 한국어를 비롯한 일본어, 중국어 교양선택수업은 바베쉬-보여이대학교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한국어 (문장 간의 기능 I)	2	10월~1월 (3학기)	6시간	8학점
한국어 (문장 간의 기능 II)	2	3월~6월 (4학기)	6시간	7학점
한국 고전문학	2	10월~1월 (3학기)	3시간	7학점
한국 현대문학	2	3월~6월 (4학기)	3시간	8학점
한국어 문헌번역 (선택과목)	2	3월~6월 (4학기)	2시간	4학점
현대 한국어-듣기능력 강화 (선택과목)	2	3월~6월 (4학기)	2시간	4학점
한국어 - 통합학습 I	3	10월~1월 (5학기)	5시간	4학점
한국문화와 사회	3	10월~1월 (5학기)	2시간	5학점
미디어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 비즈니스 한국어 (선택과목)	3	10월~1월 (5학기)	4시간	6학점
문학 번역 (선택과목)	3	10월~1월 (5학기)	4시간	6학점
한국어 실용적 문헌번역 (선택과목)	3	3월~6월 (6학기)	4시간	6학점
현대 한국어 - 듣기 기술 (선택과목)	3	3월~6월 (6학기)	4시간	6학점
한국어 - 통합학습 II	3	3월~6월 (6학기)	5시간	5학점
북한 사회와 문화	3	3월~6월 (6학기)	2시간	4학점

매 학기는 14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번째와 16, 17번째 주는 기말시험기간, 18번째 주는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 후, 19번째 주의 재시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한 학기의 모든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전체 강좌에 배정된 수업시간 중에서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수업이 학년 당 70%에 육박한다. 한국어 관련 강좌는 대체적으로 루마니아어 구사가 가능한 필자가 한국

어문법 설명 중심으로, 현지 루마니아인 교원 2명은 한국어의 말하기와 듣기, 쓰기 등과 같은 실용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박사과정 중에 있는 현지 루마니아인 강사는 연습문제 풀이 중심으로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파견교수 신분이었던 김훈태 교수는 3학년 과목인 ‘한국어-통합학습’ 수업 내용 중의 하나로 한자교육을 제공하였다. 루마니아 내 대학 중 한자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바베쉬-보여이 대학이 유일했으나, 현재는 김훈태 교수의 이임으로 일시적으로 보류상태이다.

1학년 과정의 ‘한국문화와 문명’이라는 강좌 안에서 한국역사와 관련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한국학의 기본이 되는 강좌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역사’라고 말하고 싶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한국 역사교육과 필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교육은 비단 언어기술 습득이라는 단순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적 가치, 오랜 관습과 같은 한국문화전반에 대한 교육과 연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어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언어기술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역사의 상호관계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3학년 과정 중, ‘북한 사회와 문화’ 강좌는 북한의 역사와 그들의 지도이념,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여 2011년부터 개설되었다. 북한의 역사도 한민족 역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틀에서 벗어난 보다 객관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수업은 진행되며, 무조건적인 부정적 접근 방법이 아닌 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북한의 역사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나 주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현재적 관점은 물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 연구에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당대 주체들의 사고, 의지, 행위를 가능케 했던 구조적 조건들을 당시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⁷⁾ 즉, 이 강좌는 북한 지역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와야 했는지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해

17)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5, 27쪽.

왔는지 김일성은 왜 주체사상이란 북한식공산주의를 소개해야 했는지 등과 같은 일련의 사회역사적 흐름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루마니아 학생들은 이 강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수업참여 자세 또한 매우 진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매년 졸업논문의 30~40%가 북한관련 주제를 담고 있고 연구방향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¹⁸⁾

바베쉬-보여이 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박사급의 순수 한국학 전문가가 배출되지는 못 하였다. 대학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한국학 관련 전문가를 충원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 예산확보 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한국학관련 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럽 내 대학 간의 교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ERASMUS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는 교수, 연구자들도 유럽 내 대학기관끼리 교류가 가능해졌다. 또한 CEEPUS (Central European Exchange Programme for University Studies)를 통해 학자들이나 학생들 간의 직, 간접적 교류도 가능해졌다. CEEPUS 제도는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 간 맺어진 학술협력 제도인데 참여대학으로는 ‘비엔나 대학’, ‘찰스 대학’, ‘소피아 대학’, ‘엘테대학’, ‘바르샤바 대학’, ‘코메니우스 대학’, ‘바베쉬-보여이 대학’, ‘부카레스트 대학’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이 제도는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내 한국학 발전에 매우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18) 북한관련 졸업논문의 대부분은 북한 내 인권실태나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것이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지역의 학생들이 지닌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인권과 관련이 깊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미주지역 학생들의 주관심이 북한의 핵문제라면 유럽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권을 유럽연합의 기본가치로 여기는 유럽인들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 하겠다.

바베쉬-보여이 대학 한국어문학과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학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매 학기마다 2-3번 정도의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 학기마다 몇몇의 학생들이 CEEPUS제도 안에 있는 대학들 중 바르샤바 대학, 소피아 대학과 비엔나 대학 등에서 체류하면서 한국학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바베쉬-보여이 대학 내 한국문화센터에서는 2013년도부터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매년 1회, 센터장인 필자가 시행책임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실시하고 있다. 응시자로는 대부분 한국어문학과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응시가 매년 늘고 있다. 응시자는 매년 대략 50여 명이다. 동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시험응시를 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TOPIK점수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¹⁹⁾

바베쉬-보여이 대학 한국어문학과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국제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와 더불어 한국학 발전을 위한 ‘교육자 워크숍’을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월에 개최한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위 행사에 참여했던 대학은 바베쉬보여이 대학교와 불가리아의 소피아 대학교, 헝가리의 엘테대학교,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 대학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교,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 대학교이며, 참여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바베쉬-보여이 대학의 한국어문학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장견학을 몇 차례 실시했었다.²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견학 후 한국기업에 취업한 학과 선배들을 초대하여 재학생들에게 직접 한국기업문화와 노동여건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 행사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

19) 사례로서, 제96회 TOPIK (2024년 10월)에서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한국문화센터를 통해 지원한 인원은 총 45명이다. 이들 중 5급에 통과한 응시자는 2명, 4급 1명, 3급 1명, 2급 13명, 1급 통과자는 6명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응시자의 대부분은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생이거나 졸업생들이다.

20) 코로나19의 여파와 예산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되었다.

고 있는 한국기업의 위상을 확인시켜주고 현지 루마니아 고용인들이 한국기업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계획했던 행사인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또한, 한국어문학과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향상시켜 주었으며, 재학생 간 서로에 대한 이해감을 증대시켜 조화로운 학과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였다고 자평한다. 위와 같은 행사는 한국학 발전과 직접적 관계가 없을지라도 학과의 전공유지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졸업 후 취업과 같은 진로문제에 대해 교육자들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 현지진출 기업들에게 학과의 존재가치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4년 10월,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문학대 동양어문학부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한국어문학과만의 독립적 석사과정은 아니지만, 루마니아 내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기관이 부카레스트 대학교 외에 하나가 더 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²¹⁾ 부카레스트 대학의 경우, 한국어문학과와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인도어문학과, 아랍어문학과, 페르시아어문학과, 터키어문학과가 속해 있는 동양학부에서 협동 석사과정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바베쉬-보여이 대학의 경우는 한국어문학과와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와 같은 3개학과만이 공동으로 개설한 석사 협동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차별성이 있다 여겨진다.

2023년 11월, KF의 지원을 통해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문학대 내에 Korea Corner가 개설되었다. 필자가 주도가 되어 문학대 열람실 일부에 한국관련 도서와 전시품, 다수의 멀티미디어 장비를 설치하여,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대학 내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21) 부카레스트 대학 내, 외국어문학대에 속해 있는 동양학부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에서 2005년부터 ‘동아시아학 (East Asian Studies)’에 관한 석사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서관에 위치한다는 점과 도서 이용자들이 쉽게 출입이 가능한 열람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Korea Corner사업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하리라 여겨진다. 현재는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학대 학장의 동의를 얻어 좀 더 큰 장소로 이동을 계획 중이다.

루마니아의 수도에 위치한 부카레스트 대학 대 한국어문학과와 교수진은 아래와 같다.

학과책임 교수: 문학박사 Diana Yuksel (조교수급)

전임 및 시간강사: 문학박사 Cătălina Stanciu, 박사과정 Diana Budeanu

부카레스트 대학의 한국어문학과도 바베쉬-보여이 대학과 마찬가지로 볼로냐 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학부 3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각 학년에 25명이고 동아시아학 석사과정에는 전체 15명의 학생들 중 한국어문학과 출신 5명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사 교과과정은 전체 강좌가 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좌의 내용과 주제는 바베쉬-보여이 대학교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한국어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외에 한국역사와 한국 고전, 현대 문학에 대한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IV. 루마니아 내 한국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과제

루마니아 내에서 중국학과 일본학의 역사²²⁾가 긴 만큼 학문적 입지가

22) 한 예로 부카레스트 대학교 내 중국어문학과는 1968년, 일본어문학과는 1978년에 개설되었다.

확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학, 일본학과 비교해서, 루마니아라는 토양에 한국학의 씨앗이 뿌려진지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짧은 시간에 한국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은 많은 한국학관계자들과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의 노력, 한류라 일컬어지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너지 효과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한국학연구도 꾸준히 시작할 때라 여겨진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한국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한국학관계자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필자의 짧은 소견을 피력하자면, 루마니아 내의 한국학 연구는 앞으로 지역학의 개념과 의미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학은 지역학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연구, 교육, 결과를 내야만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역학연구의 기본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역사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소위 융합학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지역학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지역분석이라는 공통된 연구방향을 지니고 있다.²³⁾ 그런 의미에서 루마니아 내의 한국학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각 대학의 대다수 한국학관련 교육자들의 전공이 언어와 문학 분야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²⁴⁾

23) 김학훈,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2014, 88쪽

24) 루마니아 대학기관 내 한국학 관련 종사자들 중, 필자만이 한국학과 관련이 없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학과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하는 지역학과와의 접목을 고려한다면 분명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루마니아 내 한국어문학과를 운영하는 각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루마니아 내의 한국어문학과는 아직까지 기타 동양어문학과, 특히 일본어문학과와 그들에 가려져 한국학관련 교수 자리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베쉬-보여이 대학의 경우 KF의 지원(교원고용지원금과 파견교수 지원 등)이 학과운영에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2016년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2018년 말까지 학과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KF의 지원에 거의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시에 두 가지 지원 즉, ‘교원고용지원’²⁵⁾과 ‘강의교수 파견’을 중단한 것은 학과를 존폐의 기로에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 후 2018년 10월, KF를 통해 파견교수로 오게 된 홍혜련 박사가 학과운영에 큰 힘이 되었으나, 이러한 지원도 2024년 여름을 기점으로 완전 중단되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서유럽 대학 기관 내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의 한국학의 상황은 여의치 못 한 것이 현실이다. 즉 한국 내의 여러 기관들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학과 운영이 힘들다하겠다. 근본적인 학과발전을 위해서는 강좌운영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학과의 자립과 성장을 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일련의

25) 바베쉬-보여이 대학교 소속 조교수(15년차)인 필자의 기본 실수령액은 대략 월 150만원이다. EU회원국이자 그리 만만치 않은 루마니아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외부기관의 지원 없이는 생활에 많은 경제적 장애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루마니아의 낮은 교원급여로 인해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루마니아인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한국에서 학위를 이미 취득한 졸업생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로 인해, 대학기관으로의 취업을 꺼리고 있다. 졸업생들의 말을 빌려보면, 현재 루마니아에서 대학졸업자들(초임)의 평균 월급여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20만원에서 150만원이라고 한다. IT계열 신입이라면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졸업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좀처럼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예산은 AKS(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KF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간은 위 기관들의 구체적인 지원과 관심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기관들의 지원을 어느 정도 꾸준히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훌륭한 학술적 연구 성과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TOPIK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지 혹은 몇 명의 학생들이 한국유학을 가는 지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혜대학의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학차원에서 한국학관련 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학과를 발전시킬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국 내 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명제 하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학 내에서 한국학과와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역시 자체 재정확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 본래의 사명은 물론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요원한 일일 것이다. 수익사업을 강화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것도 대학기관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따라서 대학 내 한국학과와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한국학과로 인해 해당대학기관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려 열악한 대학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 바베쉬-보여이 대학은 매년 7월에 신입생 입학시험을 실시하면서, 입학전형료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⁶⁾ 입학전형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국어문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대학 측에서도 한국어문학과를 통한 수익을

26) 루마니아 바베쉬-보여이 대학 문학대의 경우, 2025년도 대입전형료는 100Euro (한화 약 16만원)이다. 참고로 바베쉬-보여이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루마니아 대학들은 매년 7월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지하게 될 것이며 학과의 중요성에 많은 무게를 둘 것이다. 이쯤에서 생길 만한 의문 한 가지는 바로 어떻게 학과의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지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학생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장학금의 확대와 학과 자체적으로 여러 우수 학생들에게 한국연수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국어문학과에 지원을 할 것이라 보여 진다.²⁷⁾ 결론적으로 한국학지원사업의 대표적인 기관인 AKS나 KF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길은 한국학 관련학과를 운영하는 해당대학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학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대학 내에서 한국학과만의 위치와 중요성을 높이는 길은 앞서 살펴봤듯이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학과차원으로 많은 부분의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학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른 미주나 서유럽지역의 대학기관은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국 내 기관들이 이러한 대학기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 해당지역 한국학의 입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일부라도 루마니아 내 한국학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기관에 배정한다면 전공의 유지와 발전에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루마니아 내 한국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바람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바베쉬-보여이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는 기본 언어교재는 고려대에서 출간된 ‘재미있는 한국어’ 시리즈다. 교재 채택 시, 학과 책임교수인 Sintionean 박사가 고려대에서 1년간 연수했던 영향도

27) 필자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학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한국어문학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묻는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의 바람은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한국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있었겠지만 교재의 내용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한국어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판된 언어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해서 교재로 쓰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겠으나, 루마니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교육자가 언어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²⁸⁾

매년 신입생을 받을 때마다 몇몇 우수한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재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르기 위해, 한국어문학을 전공학과로 운영하고 있는 바베슈-보여이대 문학대 내에 한국학만의 독립적인 석사과정 개설이 요구된다. 현재 동양어문학부의 석사 협동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문학과의 석사과정 신설은 요원하다 하겠지만 독립적인 석사과정 개설문제는 한국어문학과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국학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이것은 전체 루마니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학의 질적, 양적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잘 가르치는 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진들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폭은 강의 운영 방식이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매년 매학기 동일한 강좌를 맡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신선함이 결여된 일방적인 강의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다.

28) 필자는 2020년도에 AKS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Dicționar de Gramatică Coreeană (한국어 문법사전)'을 출간한 바 있다. 김훈태 교수와 홍혜련 교수도 동일한 지원을 통해 각각 'Limba Coreeană pentru începători (초급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Coreean-Român Dicționar (한국어-루마니아어 사전)'을 출간하였다. 필자는 현재 북학 관련 서적과 고사성어에 대한 서적을 제작 중에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한국어문학과 수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재들이 현지교원들이 직접 제작한 도서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쌍방향에서 학생과 교수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업운동을 추구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적평가에서 벗어나 각 학생들을 위해, 별도 코멘트를 상세하게 적어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혹은 수업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어떤 수업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려준다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아마도 학생들에게 자주 과제를 내주는데 이러한 과제물들(주로 작문)을 각자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하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제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 학생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성취감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자에게도 학생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것은 추후 추천서 작성 시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 외에 어린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 같은 나이대의 한국학생들이 쓰는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교수진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화 시 적절한 부호화 즉 용어선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어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궁할만한 적절한 용어, 즉 어휘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의 젊은 층이 구사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면 언어의 사회적 변화측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루마니아 내 한국학 발전과정과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다. 한국과 루마니아간의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한국학관련 학습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틀림없다. 루마니아에서의 한국학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하고 싶다. 매년 증가하는 신입생의 수와 학생들의 수준이 놀랄 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여러 기관들의 관심과 지원이 당분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앞서 루마니아 측 대학기관들의 노력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루마니아의 한국학은 앞으로 지역학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인 지역학 연구의 틀에서 기획, 연구, 교육하여 결과를 창출해야만 한국학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국학의 효과적 성장을 위해서는 루마니아어로 제작되고 루마니아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판된 교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루마니아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그리 나쁘지 않겠으나, 루마니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루마니아 내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교육자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우수한 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수진들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강의운영 방식이나 강의소재의 다양화를 통해 학문적 신선함을 추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쌍방향에서 학생과 교수진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되도록 교육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 내 한국학이 중국학과 일본학 이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한국학의 입지가 좀 더 확고해지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김학훈,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2014, 87-103쪽
김훈태, 「동유럽 대학의 한국어학의 현황과 발전 방향」, 『어문연구』 42(2), 2014, 7-32쪽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5

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TUDIES IN ROMANIA:
FINDING WAYS TO DEVELOP

KWAK DONGHUN (KWAK, DONG HUN)²⁹⁾

Early Korean studies in Romania began in a very rudimentary and superficial environment. However, in recent decades Korean studies in Romania have developed in many ways due to the activ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efforts of several university educators and the influence of excellent and diverse cultural contents. The early direction of education, which was limited to language learning, is now expanding to more specific and diverse levels such as history, literature and North Korean studies. Therefore, Korean studies should not only pursue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also try continually various approaches to study a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The study of Korean studies in Romania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area studies. If Korean studies is planned, researched and educated within the framework of area studies, which is a complex concept, good results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Korean studies can be accomplished.

29)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s and Literatures,
Babeş-Bolyai University, Romania

For more effective Korean studies education, the publication of appropriate textbooks for Romanian educational environment is urgently needed. It is considered the ideal way to produce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Romania's reality by teaching educators in Romania. This may be important for the individual educator's research achievement, but should be regarded as the ultimate goal of the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Korean studies in Romania,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ster's program solely to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s essential. This should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growth of Korean studies in Romania.

For the continuous and effective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interest and support from various institutions in Korea are necessary for the time being. Of course, it is natural that the efforts and will of Romanian universities should be assumed.

Last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studies, hardware changes are important, but first of all, it is more desirable to make software changes and then build suitable hardware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it may be a good idea for the educators to be the main driver to make new and various changes in the teaching method.

Key Words : Korean studies in Romania, Area studies, The publication of appropriate textbooks, Independent master's program, Interest and support of institutions in Korea, Various changes in the teaching method